

커뮤니티 맵 작성을 위한 지역특성 추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s of a district for the community map

-광주 양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김 규 리* 허 윤 경** 양 병 옥***
Kim, Kyu-Lee Heo, Yun-Kyung Yang, Byoung-Ok
김 주 석**** 이 연 숙*****
Kim, Ju-Suck Lee, Yeun-Sook

Abstract

Urban redevelopment make a short term effects without consideration about resident's lives. so, there are many problems and planners solve the problems to improve urban redevelopment based on resident led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inherent district which is character by residents. Most of them could be explained in relation to life, religious leadership,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democratic movement. Group interviews at a field site were carried as the main methodology by people who have an intimate knowledge of the place facts. This research has implication on a cognitive and emotional community map of residents compared to the just physical and geographical map. The places and place recognition activities and movement can be a basic foundation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improving their housing neighborhood environment.

Keywords : Residents' Participation, community Map, Regeneration District

주요어 : 주민참여, 커뮤니티 맵, 거점확산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에서 인간의 삶은 일정한 질적, 양적수준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필요로 한다. 물리적 공간환경은 쉽게 변경되기 어려운 반면 인간의 삶은 시대적, 문화적 패러다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공간활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요긴하던 도시의 구조물과 시설물들이 그 가치가 저하되고 사회를 침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개발로 외연적 팽창을 해 온 세계의 도시들은 산업구조와 인구학적인 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신도시개발과 확장으로 일변하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기존도시의 재생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선진각국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용어로서 '재생'을 도시 및 주거지 정비정책

의 주요과제로 두고, 경제 및 사회문화 환경과 물리적 공간환경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정비, 관련기술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도시들의 쇠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공급은 획일화된 고층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거지 정비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널리 인지되어 왔으나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및 기준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주거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공람 등²⁾을 통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참여가 규정되어 있으나, 대개의 경우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증대되어가는 시민사회의 다원화 추세와 민주역량의 강화는 향후 주민주도적 문화의 시대가 멀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주거지 정비에 있어 주민참여는 현재와 같은 기결정된 계획에 대한 1~2회의 설명회 개최에 그치는 것이

*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과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연구교수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제2핵심과제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개발」(과제번호:2008-8-103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2) 서울시 신길2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1989)와 같이 복수의 정비안을 작성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경우도 있다.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비과정은 물론, 유지관리단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³⁾.

또한 기존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계승을 주거지 정비의 긍정적 요소로 다루는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기존 생활 공간의 질서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정비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비계획단계에서부터 해당지역 거주민의 참여 및 합의 그리고 점진적 정비이행에 의해 얻어진다.

그리고, 주거지정비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역 거주민 스스로 공공의 목표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⁴⁾,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 추구 보다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며, 이는 지역특성에 대한 인지가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기법 개발에 있어 지역특성에 대한 인식 및 공유의 확대를 위한 도구가 요구된다.

지역공간의 커뮤니티적 특성을 담은 ‘커뮤니티 맵’은 지역주민들의 인식공유의 틀로서 몇몇 선진국에서는 시도된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지 재생에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 맵의 작성 및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광주시 남구의 양림동⁵⁾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현황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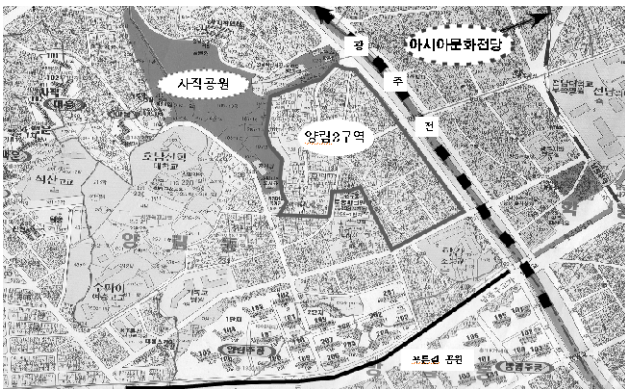


그림1 양림동 주변 현황

표1. 양림동 가구현황

구분	거주가구수 (호)①=②+③	소유거주가구 수(호) ②	세입자 (호) ③	거주인구수 (인)
수치	1,133	312	821	2,420

양림동은 첫째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적 자산이 다수 산재되어 있고 둘째, 그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 및 이를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자치 노력이 있다⁶⁾. 셋째, 지자체에

3) 김주석, 2007.10, 지속적·단계적 정비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밀집시가지정비제도에 관한 연구-요코하마시 ‘이에·미치 마치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일본도시계획학회논문집 42-3, p661

4) 김주석, 2006.3, 밀집주택시가지 재생을 위한 규제유도 제도에 관한 연구- 소규모 단위의 계획에 기반한 매니지먼트에 주목해서-요코하마국립대학, 박사학위논문 p.1

5) 거점확산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대상지구

서도 정율성 생가 주변 정비 수행 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에 기반한 개발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예비조사(2008.8~2008.9)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방법은 심층면담, 소그룹워크샵 등을 통해 거주자의 지역공간의 인지특성을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은 예비조사(2008.9.4)를 통해 파악된 주요 지역커뮤니티 공간(일정시간대에 다수의 거주자가 모이는 장소;동네슈퍼앞, 경로당, 교회 등)의 이용자 중 10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⁷⁾으로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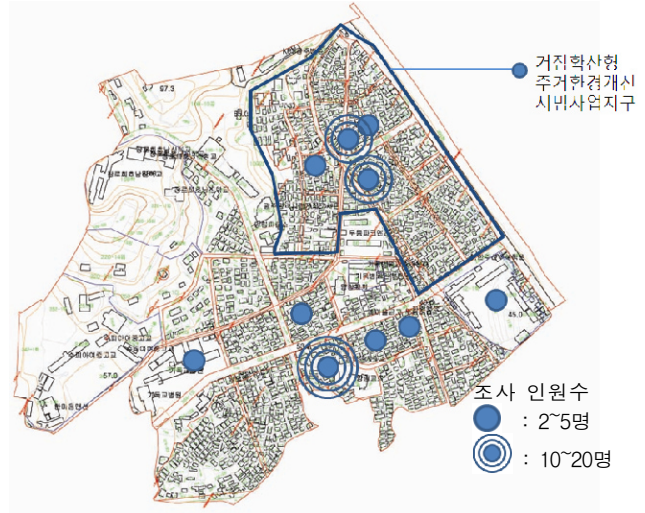


그림2 인터뷰 실시 지역

조사대상지 범위는 지역주민이 가지는 동일 커뮤니티 인식 단위를 기준으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지구’만이 아닌 양림동 전체로 설정하였다. 소그룹워크샵⁸⁾(2008.10.17~18)은 ‘양림동에 관한 추억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해당지역 관할 공무원을 통해 선정된 주민들(20명)이 사진을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II.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주거지재생 시 주민참여 유도·확산을 위한 도구로서 커뮤니티 맵의 작성과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주거지재생’ 및 ‘주민참여’, ‘커뮤니티 맵’의 개념을 살펴본다.

1.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2007년 WHO는 2030년에 세계인구 5명 중 3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였다⁹⁾. 우리 삶의 터전이 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변지역에서의 외연적 확장과 함께 기존 시가지 내부에서의 도시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6) 지역주민에 의한 (2007.7) ‘양림동, 광주근대역사문화의 보고’

7) 그룹 인터뷰는 연구자2명이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기록과 녹음기를 활용하여,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8) 소그룹워크샵 대상자 심층면담 일부 병행

9)World Health Organization(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France: WHO Press

다¹⁰⁾.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주거환경의 재생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기존에 축적된 건조환경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의 다양화와 중·저층 환경의 유지가 가능하고 집진적 개발을 통해 사회적 유대기반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¹¹⁾.

지속가능한 개발에는 일반적으로 환경의 가치(environment), 미래지향성(futurity), 참여(participation), 개발의 형평성(equity)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거지란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예방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연과 문화적 유산을 통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생활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이용, 사회통합, 환경, 에너지 이용, 교통·통신체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개발을 의미하며, 경제·사회개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¹²⁾. 이러한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형평성과 참여의 속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개발의 목표나 실천항목 혹은 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물리적 건조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설계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기준이나 설계지침 제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개발방안 연구와 도시지속성 평가연구를 종합해 볼 때, 주거지 재생에 있어서 환경적 지속성뿐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문화적 지속성의 개념이 포괄됨을 알 수 있다¹³⁾.

2. 주거지정비에서의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어떤 사업의 시행의 여부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로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발의와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과거 관주도 주거지정비가 민간주도로 변모되어, 계획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주민이 계획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삶을 다루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주민의 의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과거의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 계획 수립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계획 및 사업수행의 합리성과 민주성이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리커트(Lickert, 1961)는 참여를 통한 관리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낳고 소속감을 갖게 하며, 재개발 목표와 수행과정에 대한 개개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민과 기관과의 관계를 개선시킨다고 보았다¹⁴⁾. 이처럼 재생 과정에 시민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택과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보전하며, 해당주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적정하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¹⁵⁾

3. 커뮤니티 맵

커뮤니티 맵은 지역 커뮤니티의 지역 공간에 대한 인식강도를 나타내는 지도로, 지역 주민에 의해 작성되고 수정 성장되며, 지역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 및 활동 강도를 알 수 있는 도구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야후코리아(kr.yahoo.com)의 라이프맵이 있으며 가 지도 위에 개인 사진(UCC)을 저장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지도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또한 라이프맵을 통해 자신의 일상 사진을 시간과 위치정보에 따라 지도 위에 저장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예전처럼 ‘길 찾기’ 중심이 아니라 지도와 사진을 연계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다. 라이프맵을 통해 관심 지역별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보도 나눌 수 있다.

III. 커뮤니티 맵을 통한 양림동 커뮤니티 공간특성

지역주민의 공간인식을 반영한 커뮤니티 맵의 작성을 위해 양림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그룹 워크숍, 심층면담 등을 통한 지역내 공간에 대한 인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언급이 많은 지역을 주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여 이들을 요소로 하는 양림동 커뮤니티 맵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특성을 확인한다.

1.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심층 면접은, 우선 지역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주요 장소에 연구자가 평일 및 주말에 현장방문하여, 그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 거주년수가 10년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지역에 대해 애착감을 갖고 있고, 비교적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파악되었다.

표 3 면접대상자(51명) 특성

성 별	남			여		
	명(비율)					
연령	20	30	40	50	60	70
명	1	3	8	10	17	12
직업	주부	자영업	무직	정규직	일용직	
명	21	16	7	4	3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대부분(76.5%)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자영업의 경우도 영세하였으며, 정규직은 1%에 미치지 못하였다.

14) Likert, Rensis(1961), New patterns of management

15) 하성규, 김태섭(2003),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박영사, 하진목, 오덕성, 최준성(2008)에서 재인용

10) 김영환(2001), 영국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계획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제1호

11) 문홍길, “재생의 주거환경적 의미 : 주거환경의 보전”, 건축 9507, 김영환(2001)에서 재인용

12) UN, Habitat Agenda(II), 1996

13) 김영환(2001), 영국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계획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제1호

2. 종합 분석

장소에 대한 언급 수 및 우선순위를 한정하지 않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추억의 장소

분류	장 소	언급건 수(건)	비율(%)
일상 생활 공간	사직공원	48	36.60
	광주천	16	12.20
	오거리버스종점	4	3.00
	경로당	2	1.53
	양림다리	2	1.53
	학강초교	2	1.53
	기차길	2	1.53
	사직도서관	2	1.53
	숭일고	2	1.53
	소 계	80	60.98
전통 문화 공간	개비석	6	4.60
	최승효 가옥	4	3.00
	정율성생가	2	1.53
	이장우가옥	2	1.53
	양과정	2	1.53
	남광주장	2	1.53
	소 계	18	13.72
종교 공간	선교사 무덤	5	3.80
	수피아여고	5	3.80
	양림교회	2	1.53
	소 계	12	9.13
민주 역사	5.18 사건관	2	1.53
	기 타	20	14.64
합 계		13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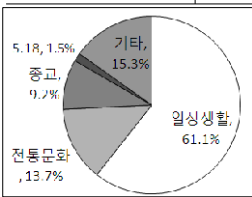


그림3 추억의장소 비율

나는 지역의 상징들이 물려있는 중심가로(커뮤니티 축 B), 그리고 광주천으로 이루어진 3개의 축에 수렴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4 참조) 특히, 이러한 장소의 61%가 일상생활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현행 커뮤니티 공간(그림4의 조사인원수 표시지점)현황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역의 일상적 커뮤니티 공간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즉, 양림동의 지역커뮤니티 인식에 주요한 공간들은 이들 2개의 가로와 광주천을 잇는 삼각형의 동선축 상에 존재하며 이는 향후 지역정비의 공간 구성 특히, 도로는 물론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도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주거지 재생에 있어 지역특성에 대한 인식 및 공유의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 맵의 작성 및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된 양림2지구를 포함하는 광주 양림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도구인 커뮤니티 맵을 작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추억에 관한

장소를 인터뷰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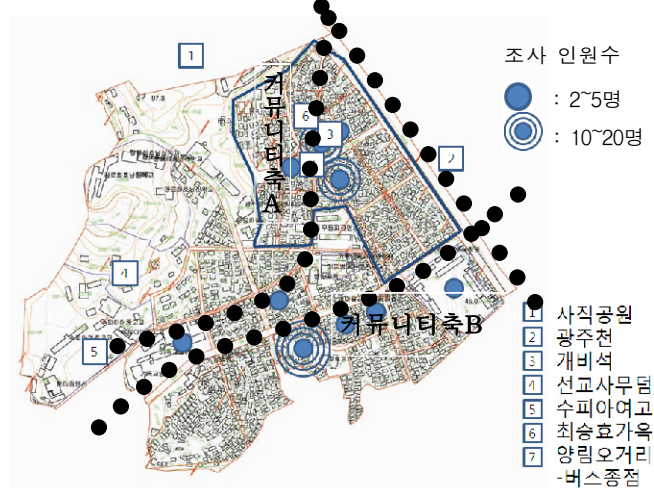


그림4 추억에 관련된 장소 및 주요커뮤니티축 이를 통해 주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수렴되는 주요한 커뮤니티 축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현지개발형 지역 정비에 있어 지역의 공간특성 및 계획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맵을 작성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가 지역 주민들의 추억의 장소를 수집하여 이를 지도상에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축으로서의 주요가로과약에 그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커뮤니티 맵의 공유를 통한 지역의 관심증대, 나아가 그 작성과 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교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현행 IT 및 UCC기술을 활용한 보다 구체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김주석, 2006.3, 밀집주택지자기 재생을 위한 규제유도 제도에 관한 연구- 소규모 단위의 계획에 기반한 매니지먼트에 주목해서-요꼬하마국립대학, 박사학위논문 p.1
2. 김현식, 이영아(1996.12),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p.13-14
3. 김영환(2001), 영국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계획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1호
4. 배용규(2001.8), 지역단위의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서수정(2007),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햄시 도시재생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7호
6. 송혜승외 2인(2008.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선화사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3권 제3호
7. 신중진, 신호진(2008.2),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2호(통권232호)
8. 이윤경, 이계선(2008),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협동 학술대회
9. 하진복, 오덕성, 최준성(2008), 영국의 노후 주거단지 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0. 김주석, (2007.10) 지속적·단계적 정비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밀집지가정비제도에 관한 연구-요꼬하마시 '이에·미치 마치 개천사업'을 대상으로, 일본도시계획학회논문집 42-3, p661